

정동영·손학규, 정몽준·박진에 고배

■희비 엇갈린 유력 정치인

18대 총선에서는 과거 어느 총선보다 유력 정치인들의 부침을 결정지을 승부가 많이 펼쳐져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대선이나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후보들, 주요 정당의 대표 주자들이 전국에서 당과 개인의 정치생명을 걸고 혈투를 벌였으나 상당수의 후보가 낙마하는 아픔을 겪었다.

통합민주당의 회생을 위해 온갖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로 출마를 결단한 손학규 대표는 선거 초반 20%포인트에 가까운 지지를 견차며 추격했으나 조직력으로 버틴 한나라당 박진 후보에 3.7%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다. 역시 서울 동작을에 출마하며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향후 대선 경쟁자로 분류되는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에 12.7%포인트 차로 대패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의원과 서울 은평을에서 맞붙어 화제를 모은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는 9.2%포인트

‘왕의 남자’ 이재오·이방호 등도 추풍낙엽 ‘친노’ 김두관·유시민 낙마... 이광재만 생존

트 차로 비교적 여유있는 승리를 따냈다.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은 경남 사천에서 이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으로 한나라당 공천을 좌지우지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방호 사무총장, 권영길 의원은 경남 창원을에서 강기원 한나라당 후보와 대결에서 각각 승리해 진보진영의 정치 맥을 이어갔다.

반면, 민주노동당을 탈당해 진보신당을 만든 노회찬, 심상정 대표는 나란히 낙선해 아쉬움을 남겼다. ‘귀족’과 ‘서민’의 대결이라는 애정이 불었던 서울 노원병 지역 선거에서는 노 후보는 3%포인트 차로 30대의 한나라당 홍정욱 후보에게 패했으며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출마한 심 후보는 한나라당 손범규 후보에 5.8%포인트 차로 분무를 삼켰다.

재야 출신 정치인의 대주주로 평가받

아은 3선의 김근태(민주당) 의원은 ‘뉴라이트’의 짧은 피 신지호 한나라당 후보에게 1.5%포인트(991표) 차이로 석패했으며 열린우리당 창당의 주역인 신기남(서울 강서갑) 의원이나 종진인 유인태(도봉을) 의원도 지역구에서 각각 낙선의 고배를 들었다. 소위 ‘친·신·정’ 중에서는 천정배(안산 단원갑) 의원만이 살아남았다.

자유선진당을 창당한 이회창 총재는 충남 홍성·예산에서 한나라당의 홍문표 후보, 대선에서 3전 3패하고 민주당의 공천에 탈락해 무소속으로 논산·계룡·금산에 출마한 이인제 후보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를 모두 제치고 각각 당선됐다.

친노인 김두관 전 행사부장과 유시민 의원은 각각 패했으나 이광재 의원은 강원도에서 재선 의원이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결과 어떨까...” DJ, 박지원 후보에 전화

투·개표 현장 이모저모

“겸손하게 잘하라” 당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목포에 출마한 박지원 후보의 당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와 눈길.

개표가 60%가량 진행된 오후 8시30분께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거결과가) 어떻게 돼 가느냐?”는 전화를 받은 박 당선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답했고, 이에 김 전 대통령은 “겸손하게 잘하라”고 당부.

통화를 마친 박 당선자는 “오는 15일 김 전 대통령이 미국 3개 대학교의 초청강의를 수행할 계획인데 ‘당선’이라는 좋은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투표지 분류기 오작동 식은땀

○~높은 습도와 예년보다 길어진 투표용지로 인해 투표지 분류기가 잦은 오작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개표 요원들이 식은땀.

광주시 남구 방림동 방림초교에서 오후 7시부터 시작된 개표작업 중 투표지 분류기가 잦은 고장을 일으키며 개표가 지연. 이는 아침부터 내린 비로 인해 습도가 높아지면서 투표용지가 녹록해져 투표지 분류기가 인식을 못 했기 때문.

또한, 5명뿐인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투표용지 길이에 비해 15개 정당이 적혀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투표 용지가 25cm에 달한 것도 분류기의 오작동의 원인으로 지적.

약천후속 ‘도선’ 타고 한표 행사

○~14구가 26명이 살고 있는 ‘작은 섬’ 전남 신안군 압해면 효지도 주민 12명은 오전 8시 30분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는 약천후를 무릅쓰고 0.8%짜리 ‘효지 도선’을 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가 진행된 광주 동구 전남여고체육관에서 개표원들이 둘러앉아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고 육지로 건너와 압해 쌍용초등학교 제2 투표소에서 귀중한 한 표를 행사.

효지도 이장 박진우(69)씨는 “도선을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비바람이 불고 파도도 높았지만 주민들의 투표 열의가 높아 함께 배를 타고 투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급대원들 ‘선거 도우미’ 맹활약

○~질병이나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투표를 마무리.

노환으로 움직이기 힘든 허금안(88·광주 남구 방림동) 할머니는 전남 소방서에 ‘선거 도우미’를 신청, 선거 당일 남부소방서 구급대 2명의 도움을 받아 방림2동 제1투표소인 방림주민센터에 도착했으며, 하반신 마비로 움직일 수 없는 김숙희(54·여)씨도 구급차를 타고 광주 동구 학동 제2투표소인 축협건물에서 투표를 마치고 귀가.

투표소 입구 현수막 한때 소동

○~광주지역 격전지 가운데 한 곳인 광산구 갑 선거구에서는 몇몇 투표소 입구에 후

보 현수막이 내걸린 것이 발견돼 선관위 직원들이 이를 급히 떼어내느라 한바탕 소동.

광산구 선관위는 이날 아침 “모 후보의 현수막이 투표소 입구에 걸려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뒤 투표소 입구나 담장 등에 내걸린 10여 개의 현수막을 떼어 다른 곳에 옮겨 붙이도록 조치.

‘1인 2표제’ 일부 유권자 혼란

○~1인2표제를 잘 알지 못하는 일부 유권자들이 정당투표용지와 후보투표용지 등 2장의 투표용지를 모두 한 개의 투표함에 집어넣거나, 투표용지와 다른 색깔의 투표함에 집어넣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

이날 오전 광주 동구 운림동투표소의 경우 투표를 마친 박 모씨가 흰색과 연두색 2장의 투표용지를 한개의 투표함에 넣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 등 상당수 투표소에서 이같은 사례가 발생했으므로 선관위는 전언.

/홍행기자 redplane@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방송사들 또 엉터리 출구조사

각 당 예상 의석수 크게 빗나가

세 번 연속 실패했던 방송사의 총선결과 예측조사가 이번에도 ‘쪽집게’라는 평은 듣지 못하게 됐다.

KBS·MBC·SBS·YTN 등 4개 방송사가 올해에도 수십억 원의 비용을 들여 출구조사를 했지만 투표결과와 확인된 실제 정당별 의석수가 예측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이다.

방송사들은 한나라당의 의석수를 최저 155개에서 최고 184개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152개에 불과, 사실상 예측이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의 경우 실제 획득의석은 80개로, 최저 68개에서 최고 93개로 예측한 방송사의 출구조사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자유선진당은 방송사 예측 최고치보다 많은 21석을 확보했다. 친박연대 역시 4개 방송사 최고 예측치 11석보다 2석이 더 많은 13석을 확보했다. 사실상 예측이 빗나간 셈이다. 방송사 조사는 특히 각 정당별 획득 의석수를 ‘155~178석’과 같은 식으로 표현, 무려 20석 이상의 오차를 뒀으며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방송사들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에는 실제 개표결과와 예측결과가 크게 달라 혼란을 초래했으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방송을 내보내기도 했다.

출구조사와는 다르지만 여론조사도 많은 허점이 드러났다. 광주·전남에서는 대다수 여론조사가 광주 남구와 북구갑, 광산구갑, 전남 목포, 무안·신안 등 소위 ‘격전지’로 불리는 5곳에 집중됐다. 하지만, 조사결과 4곳은 ‘대체로’ 맞았지만 무안·신안 1곳은 완전히 틀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2~3차례의 조사를 통해 민주당 황호순 후보가 DJ처남인 김홍업 후보를 이긴다는 결과를 내었다. 그러나 실제 투표결과, 각종 조사에서 3위에 그쳤던 무소속 이윤석 후보가 당선됐다. 심지어 일부 여론조사기관은 지난달 31일 조사에서 김 후보가 황 후보를 4%포인트 차이로 이긴다고 내다봤다. 역시 이 후보는 황 후보에 이어 3위였다.

광주 광산구갑도 마찬가지. 대다수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김동철 후보가 1위였고 실제 당선자도 김 후보였지만, 일부 여론조사 기관은 김 후보가 경쟁자인 송병태 후보보다 6%포인트 뒤진다는 결과를 내뒀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전남 한나라 후보 4명 ‘魔의 10%’ 돌파 ‘만년 당료’ 정양석(강북갑) 이정현(비례) 금배지

한나라당 지역구와 비례대표 당선자 가운데 전남출신 2명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서울 강북갑에 출마, 전대협 2기 의장출신 민주당 오영식 후보를 꺾은 정양석 당선자는 보성출신으로 전남대를 졸업한 뒤 20여 년간 한나라당 당직자로 일해왔다. 정 당선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에 비해 10%포인트가 뒤지면서 줄곧 2위를 유지해왔으나 실제 투표에서는 승리를 누렸다. 비례대표 22번으로 국회에 입성할 이정현

전 한나라당 부대변인도 이 지역 곡성출신이다. 이 당선자는 박근혜 캠프 대변인을 맡아 활약해 왔다.

박재순 한나라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비례대표 28번을 받아 국회입성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됐으나 한나라당이 25석의 비례대표를 얻는데 그치면서 낙선, 아쉬움을 남겼다.

광주·전남 지역구에 출마한 한나라 후보들 중 광주 서구갑의 정용화 후보를 비롯 4

명의 득표율이 ‘마(魔)의 두자릿수’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정 후보는 총선에서 11.14%의 득표율을 기록해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두자릿수 지지율을 확보했으며, 전남에서는 나주·화순의 김창호 후보가 11.8%, 담양·곡성·구례의 김문일 후보가 12.7%를 각각 기록했다.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표가 많이 나오는 광양에서는 김광영 후보가 18.7%의 높은 득표율을 확보했다.

한나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두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한 선거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정책으로 선거 때마다 두자릿수 득표지역을 늘려가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

